

《로마인 이야기》15권 완결,  
13년 국내 소개한 번역가 김석희  
번역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각별한 책

일본 여류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역사서 《로마인 이야기》가 15권으로 완결됐다. 《로마인 이야기》는 1992년 일본에서 첫 권이 나온 후 지난해까지 15년간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온 장기 기획서다. 국내에는 1993년 한길사에서 세 권이 동시 번역, 출간된 이래 매년 김석희라는 번역가의 손을 통해 속보 전하듯 속속 출간됐다. 1권부터 완결본까지 번역을 맡은 번역가 김석희 씨는 시종 “번역가는 작가의 뒤에 서는 것이 예의”라며 겸양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최종 원서를 넘겨 받고 21일 만에 번역을 끝마쳤다. 하루에 원고 100매의 분량을 해치웠다. 주변인들은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면서 그 열정과 노고에 혀를 돌렸지만 정작 본인은 “13년간 같은 문체에 빠져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라고 담담히 말한다.

“시오노 나나미 작가의 글이 굉장히 남성적이고 힘있는 문장이라 번역가 입장에서는 작업이 즐거웠습니다. 독자들에게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사랑받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너털웃음으로 ‘시원섭섭하다’며 속내를 표한 김석희 씨는 국내 번역가 중에서도 탑 클래스 안에 꼽히는 프로다. 수많은 외서 번역 작업 중에도 《로마인 이야기》만큼은 당연하듯 그의 손을 거쳐 독자를 만났다. 한 명의 번역자가 생존 작가의 장기 시리즈를 번역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로마인 이야기》는 한때 정통 사관이 부족하고 정치적 야욕이 내재된 책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출간부터 지금까지 십년 이상 일본은 물론 국내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로 꼽힌다.

《로마인 이야기》는 김석희 씨의 번역인생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책이다. 소설가로 문단에 첫 발을 내딛은 후 번역과 창작의 갈림길에 섰을 때 매년 《로마인 이야기》를 만나며 자연스럽게 번역가의 길로 방향을 틀었다. 9권째부터는 국내 출간 시기를 맞추기 위해 연말휴가를 반납하고 꼬박 번역에 몰두해야 했다. 그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시기에 항상 로마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담당 편집자만도 5명이 넘게 교체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출판사와 번역가로서 신의를 지킨 점도 모범사례로 남게 됐다. 김석희 씨는 앞으로 주류 문단에서 소외됐지만 상상력과 깊이 있는 문체를 담은 외서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취재 송보경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